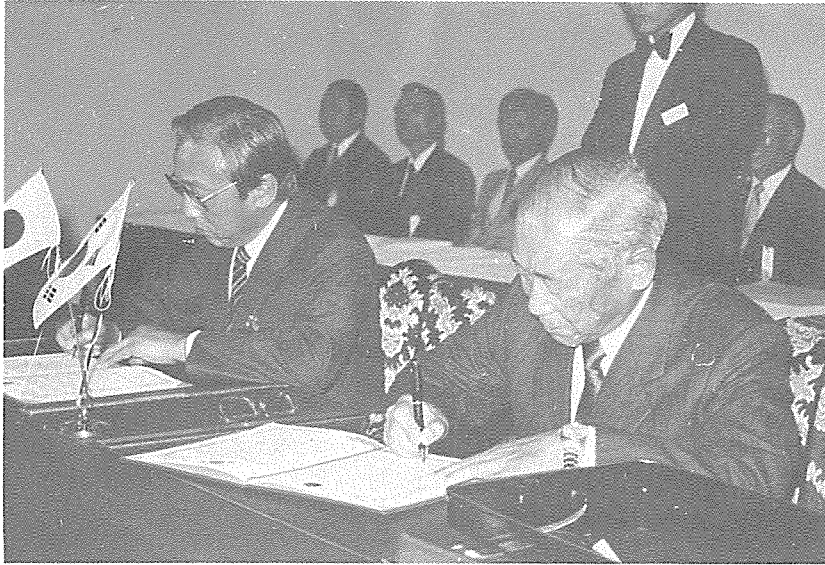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자매결연조인 일본 구강외과학회



- 지난 10월 15일 일본국 후쿠오카현 구루매시(일본 구강외과학회 총회장)에서
- 양국간 제도적인 학술교류를 위한 매년 학술발표회를 가질예정.



〈한국측 関丙一회장과 일본측 스자꾸(朱雀直通)회장, 소노야마(園山 昇)이사장의 자매결연 조인장면〉

지난 10월 15일 일본국 후쿠오카현 구루매시에서 열린바 있는 일본 구강외과학회 제31차 총회장에서는 우리나라 구강·악안면외과학회와 일본 구강외과학회와의 자매결연식을 가진바 있다.

양국간 제도적인 학술교류의 정착화의 일환으로 시도된 이번 결연식에는 우리나라에서 関丙一회장, 李春根 초대회장을 비롯한 24명의 회원과 일본측에서는 스자꾸(朱雀直通)회장, 소노야마(園山 昇)이사장을 위시하여 120명의 이사급 평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고 엄숙하게 거행되었다.

이날 일본 구강외과학회 석상에서는 한국측에서 8개 연제가 발표되어 많은 관심을 끌었으며 사실상 학술교류의 제1보를 내디딘 셈이다. 다음 학술교류회는 1987년 5월에 개최 예정인 대한구강·악안면 외과학회 총회에는 일본측에서 많은 회원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간 회장의 조인을 마친후 자매결연을 축하하는 데 reception party가 센트라호텔에서 열려 영속적인 우의를 다졌다.



調印式席上에서 韓國側을 代表해서 人事하는 関丙一會長



兩國間 友誼를 다지는 記念牌 贈呈



韓國側 代表中, 左로부터 李春根, 関丙一, 奇昌德, 李相喆, 南日祐 교수